

# 콘크리트 숲, 개발의 틈바구니에서 피어난 생태목회

## ■ 창조세계를 돌보며 마을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광주계림교회(담임 최요한 목사)

통합특별시로 다시 태어나는 전남광주특별시 계림동 한가운데 자리한 광주계림교회. 올해 10월 첫 주 창립 80주년을 맞는 유서 깊은 교회이다. 도심 재개발 회오리가 일던 지난 2018년 지금의 위치에 예배당을 신축하면서부터 담임 최요한 목사는 온통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콘크리트 숲속에서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작은 몸짓을 시작했다. 옥상정원 초록 숲, 태양광, 빗물 모아 연못 조성, 다함께 돌봄센터운영에서 미자립교회 태양광 설치 돕기 사

업까지... 작은 실천들이 하나둘 쌓여, 창조세계 회복의 큰 발자국이 되고 있다. 창간 27주년을 맞은 미션21·imsTV가 생태목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광주계림교회를 취재했다.

글 = 이박형 본지 주필  
영상 = 장복근 미디어팀장



푸른마을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식물을 가꾸고 숲 체험도 하고 재활용품으로 놀이도 하면서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계림교회가 생태목회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마을 풍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골목마다 담쟁이도 있고, 오래된 나무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정겨운 숨결 같은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더군요. 물론 개발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너무 빠른 개발은 자연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도 약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그 한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지키고, 도시 한복판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다시 배우게 하는 일,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그 가치를 나누는 일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슬림 빛고을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취지에서 시작됐습니까?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지역 안에서 생태적 삶을 실천하려다 보니, 결국 사람의 삶 전체와 연결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면 태양광이 필요했고, 짙은 가정을 생각하면 돌봄이 필요했고, 지역의 아

는 일이 따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목회는 결국 마을을 다시 살리는 목회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큰잔치와 어른신 초청 잔치는 마을에 어떤 변화

를 만듭니다. 뮤지컬도 하고, 마술쇼도 하고, 생태 체험도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하지요. 가을에는 어른신들을 모시고 식사와 공연을 나누는 큰잔치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다 보면 교회가 단지 예

## '푸른마을 돌봄센터' 맞벌이 가정 아이들 식물가꾸기, 재활용 학습도 식물 그림책 작은 도서관, 옥상 텃밭, 제로웨이스트 운동 함께 실천 삶 속 RE100 신앙의 실천,미자립교회 태양광 설치지원 사역도 펼쳐

### 어린이 큰 잔치·어르신 초청잔치 등 마을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

이들과 청년들을 생각하면 장학도 필요했습니다. 또 생태 감수성을 나누려면 주민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했고요. 그렇게 하나씩 이어지다 보니 지금의 협동조합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자연을 살리는 일과 사람을 살리

를 만들고 있습니까?

재개발 이후 아파트는 많아졌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마을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어린이 큰잔치를 시작했습

니다. 베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세대들을 다시 이어 주는 장소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도 결국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더군요.

과 후에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감수성을 몸으로 배우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가꾸고, 재활용품으로 놀이도 하고, 숲 체험도 하면서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만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고 있고, 이 세상도 함께 돌보아야 하는 존재구나' 하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히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런 배움이 결국 신앙교육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식물 그림책 작은 도서관,

옥상 텃밭,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저희는 생태목회가 강단에서만 말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보고, 만지고, 배우고, 함께 해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1층에는 식물 그림책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옥상에는 텃밭을 조성해 주민들과 함께 채소를 기르고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제로웨이스트 교육을 통해 친환경 세제 만들기나 에코백 만들기 같은 생활 실천도 함께 하고 있고요. 이런 공간과 프로그램이 쌓이면서 교회가 환경운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사이에서도 "여기에도 생명이 숨 쉬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사역과 RE100 실천은 왜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까?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말만 하고 실제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태양광을 단순한 시설 투자가 아니라, 창조세계를 돌보는 신앙의 실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당과 인근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형편이 어려운 미자립교회들에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만 혜택을 누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전환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생태적 전환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태양광 사역도 일종의 상생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태목회의 영적 의미와 광주 교계에 드리고 싶은 당부는 무엇입니까?

저는 생태목회를 교회가 시대의 유행을 따라 하는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어떻게 사랑하고 돌볼 것인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과 창조세계 보전은 따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외면하면서 복음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의 교회들도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태적 연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배려에 화분 하나를 놓고, 일화용품을 줄이고, 마을의 아픔을 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 결국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금이 되고 희망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빗물을 받아 만든 연못에는 각종물고기들이 살고있다. 연못 옆에는 식물그림책 작은도서관이 있다.



생태목회는 마을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화분 하나라도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 계림교회 성도들.



imsTV (ims 21.tv)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촬영 '송안의 신문'

- 1 언제 어디서나 정보검색 가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기만 하면 종이신문의 모든 콘텐츠와 기사 및 광고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검색 가능합니다.
- 2 하루 더 빨리 보는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이신문보다 하루 앞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신문이 배포되는 토요일에 앞서 금요일 저녁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기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3 지난 기사·일반 정보·성경말씀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기사 검색은 물론, 다른 포털로 이동하지 않고도 일반 정보와 성경말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미션21은 종이신문이 갈 수 없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